

광주불교연합회는 지산동 일대서 저소득 가구 50곳에 연탄 1만장과 쌀 2천kg을 배분했다.

## 1만장 연탄 훈풍, 복지 사각지대에

### 광주불교연합회, 지역에 자비의 연탄·쌀 전달

칼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겨울철, 난방의 어려움을 겪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자비의 연탄'이 전달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와 빛고을나눔나무는 12월 16일 광주 동구 지산동 일대에서 '2016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열고 연탄 1만장과 쌀 2,000kg을 배분했다.

이날 나누기 행사에는 연광 스님,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과 광주불교산우회,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들이 참여해 저소득 가구 50곳에 물품을 전달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쌀쌀한 날씨임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대표해 "올 겨울은 여느 해보다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이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주변 이웃들을 살펴 건강한 겨울나기를 도와 자비의 온정을 전달했으면 한다"고 행사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연탄은 광주 지산동 연화사를 비롯한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들의 기금을 모아 만들어졌으며, 쌀 2,000kg은 소원정사(주지 도계)에서 기부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김등수 불교산우회장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참여해 기쁘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결식아동 위한 동지팥죽 보시행

### (사)착한벗들, 요양원·아동센터 등에

전라북도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은 동지와 연말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자비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복지단체를 찾아 동지팥죽을 전달했다.


빈센치오 요양원서 팥죽나눔 후 배식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

착한벗들은 12월 14일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국제서포터즈와 함께 진행한 동지팥죽 나눔행사에서 전주지역 결식아동 도시락 나눔사업을 하고 있는 '엄마의 밥상'에 300인분의 팥죽을 전달했다. 이어 17일에는 완주군 빈첸시오 요양원과 해님지역아동센터 등 7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400인분의 팥죽을 전달했다.

전북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전북불교계가 주최하는 '작은나눔 큰 행복 동지팥죽나눔' 행사가 진행돼 왔으나 올해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자는 의견에 따라 지역 복지기관에 팥죽을 전달하게 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착한벗들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올해 동지팥죽나눔 행사를 예년과 달리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火魔 지나간 곳에 나투신 삼존불

### 정읍 내장사, 대웅보전서 삼존불·후불탱화 점안법회


내장사 대웅보전에 새롭게 점안된 삼존불 앞에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지난 2012년 전기난로 주변 아크현상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대웅보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은 정읍 내장사. 복원불사를 통해 법당은 완공됐지만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불이 조성되지 않았던 이곳에 마침내 삼존불이 나투었다.

내장사(주지 도완)는 12월 17일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는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다. 대우·법현·범여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정읍사암연합회장 원공 스님, 벽련암 주지 진공 스님, 고창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선운사 총무국장 심학 스님,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유진섭 정읍시의장, 불자 500여 명이 동참해 새롭게 조성된 삼존불에 찬탄을 보냈다.

이날 법회는 불교전통방식으로 진행된 점안식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경과보고, 인사말, 격려사, 축사, 음성공양,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도완 스님은 인사말은 통해 "내장사는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도님들의 도움으로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조성할 수 있었다"며 "오늘 점안법회를 계기로 지역불자들은 물론 전국의 불자들을 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로 재곤 스님은 격려사서 "점안식은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매우 뜻 깊은 의식"이라며 "새롭게 조성된 삼존불과 이 인연공덕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크고 작은 일들이 원만히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장사는 점안법회에 앞서 12월 15일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도완 스님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웃을 보살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600~640) 37년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후 전각만 50여 동에 이르는 대가람이었으나 임진왜란, 6.25전쟁 등 5화 7건에 이르는 전란으로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2012년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된 후에는 3년에 걸친 복원불사를 통해 정면 5칸, 측면 3칸 150㎡ 규모로 완공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스님은 불자장병들의 친구"

### 탑사·혜인정사·황방사, 성탄절 앞서 불자장병 위문


마이산 탑사와 혜인정사, 황방사 스님과 불자장병들이 송년 위문법회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법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자장병들만을 위한 송년법회가 열렸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대구 혜인정사(주지 진송), 전주 황방사(주지 지호)는 12월 18일 전북 임실 제6탄약창(창장 배희관 대령) 호국 장영사에서 불자장병들을 위한 송년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진성·진송·지호 스님 등 각 사찰 주지스님과 이성강 호국장영사 지도법사, 이정규 금강회장, 전북지역 포교사와 불자장병 등 200여 명이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원일 금산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마이산 탑사 난타봉사단은 신나는 최신 음악에 맞춰 신명나는 난타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최근 창단한 혜인정사 색소폰 봉사단은 능숙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연주를 선보였다. 진성 스님과 진송 스님은 수준 높은 색소폰 연주 실력을 선보여 장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진성 스님은 장병들이 군생활동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적용할 수 있는 명상방법을 지도한 후 송년법어를 통해 "스님들과 불자들은 항상 불자장병들의 따뜻한 이웃이자 친구, 가족으로 장병들 곁을 지킬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힘들겠지만 지금의 군생활이 전역 후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성강 지도법사는 "연말과 성탄절을 맞아 불자장병들이 소외될 것 같아 송년법회를 마련했다"며 "흔쾌히 불자장병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준 스님들과 불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회 후에는 각 중대별 12개팀이 참가한 장병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다. 이날 장기자랑에서 수상한 오현석, 김상록 상병 등 3팀에는 4박5일의 휴가증과 상금이 전달됐다. 또 각 사찰에서 마련한 피자와 통닭, 빵, 음료수 등이 간식으로 제공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한 해 정리한 전북불교 송년법회서 새해 다짐

전북지역의 불자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정유년 새해 전북불교발전을 다짐하는 송년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17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에서 '2016 전북불교인의 밤'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전북사암승가회 스님들과 정동영·김광수 국회의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불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참회하고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송년법어에서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2016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호남권 교구신도회 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포교원의 7대 종책을 공유하고 신도조직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종단신도등록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생명나눔본부 활동 우수자 시상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15일 광주 수자타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 저녁식사로 이어진 행사에는 현지 스님,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명신 스님을 비롯해 이사 스님들과 회원들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시상식에서는 광주광역시장상은 김은희 후원회장, 교육감상은 정광중학교 양진희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김명선 광주운전불자회원이 공로패, 비전사 '자비의 밭' 후원모임, 정종신 광주불교방송 기자, 이준엽 불교신문 기자, 조혜영 공예작가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시상식 후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 환우 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 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도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